

배종옥 “치매 연기, 언젠가는 할 역할...이제 끝 아냐”

35년 차 베테랑 배우
내일 개봉 영화 ‘결백’서
살인 용의자 ‘채화자’ 역



‘결백’

35년 차 베테랑 배우 배종옥에게도 ‘치매 걸린 촌로’는 도전이 될 법했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야당 대표가 된 입지전적 인물인 ‘윤찬경’ 처럼, 지적인 엘리트 캐릭터가 찰떡같이 어울리는 그이기에 내심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다. 연기에 대한 갈증으로 흔쾌히 수락했다는 배종옥은 “언젠가는 할 역할이었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다.”

오른 10일 개봉을 앞둔 영화 ‘결백’에서 그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농약 탄 막걸리를 마신 주민들이 숨지는 사건의 용의자가 되는 ‘채화자’를 연기했다. 급성 치매에 걸린 그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래전 집을 떠났다가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실제 뉴스에 등장했던 농약 살인 사건에 관심을 갖던 중,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결백’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내가 맡게 될 역할과 상관없이 시나리오 자체를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읽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 역할보다는 시나리오, 작품 자체를 보고 결정했어요.”

남성 캐릭터가 주류를 이루고 여성 캐릭터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세대가 다른 두 여성 배우가 작품을 끌고 나간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작품”이라고 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치매 걸린 화자는 딸 정인(신혜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픈 아들만 챙긴다. “작품 속 관계를 촬영 현장에서도 유지하는 게 감정에 도움이 된다”며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낯선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두 세 시간이 걸리는 노역 분장 과정을 “채화자라는 인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내 지켜봤다”는 그는 “채화자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내가 채화자로 보이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고 했다.

영화 사회화가 끝나고 열린 간담회에서 허준호는 (‘배종옥과 신혜선’) 두 분의 팬이 된 영화다.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두 배우의 연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자신 있게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배종옥은 “이번 영화를 통해 듣고 싶었던 말은 허준호 씨한테 다 들은 것 같다. 다 얘기해 줘서 고맙더라”며 웃었다. 허준호와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너무 멋있게 늙지 않았나요? 그렇게 멋있게 나이 드는 동기, 선배들을 보면 늙는 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허준호 씨와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어요. 이걸 꼭 써주세요.”

연기 생활 35년 차, 어느덧 현장에서 ‘대선배’가 됐다. 신혜선은 처음 호흡을 맞춘 배종옥을 두고 “순수한 배우의 열정을 갖고 계시다”며 “아직도 해보고 싶은 역할이 많다며 힘든 촬영에도 힘든 내색을 안 하신다”고 했다.

“연기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젊었을 때보다는 체력이 달라니까 힘들다고



신혜선, 배종옥(오른쪽)이 영화 ‘결백’ 언론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각할 때가 있었고, 슬럼프도 있었지만 일하는 게 행복하니 끊임없이 달려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그에게 아직 남아야 할 산이 있다면, 코믹 연기가. 중·노년 배우들을 평가 따르는 게 장기간 김병욱 시트콤(랜만해

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도 그는 알미울 정도로 목소리 나고, 진지했다.

그는 “제가 진지하게 웃기는 애라는 걸 감독이 알았던 것 같다”며 “그 역할을 지금 준다면 더 열심히 잘했을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



조선말 권력 암투 본격화
TV조선 주말극 ‘바람과...’
시청률 4.6% 꾸준한 상승세

민족의 명운이 흔들리던 조선 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인재들을 모으는 김메이커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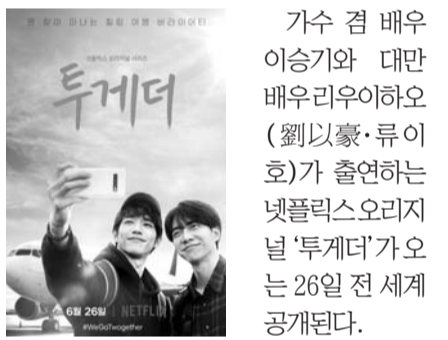
TV조선 주말극 ‘바람과 구름과 비’가 권력 암투를 힘 있게 그려내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 방송한 ‘바람과 구름과 비’ 6회 시청률은 4.583%(이하비 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1회 3.8%로 시작한 이 드라마는 3회 이후 줄곧 상승 곡선을 그리며 5% 돌파를 눈앞에 뒀다.

전날 방송에서는 최전중(박시후 분), 이봉린(고성희), 흥선대원군(전광렬), 채인규(성혁), 김병운(김승수)가 각자 이루고 싶은 바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조선 최고의 역사가 최전중은 조정에 파바람을 불고 올 왕위에 대한 예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바람과 구름과 비’는 역술과 명리학을 소재로 조선 말기 숨겨진 나라의 운명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이승기-대만 배우 리우이하오
넷플릭스 ‘투게더’ 26일 공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대만 배우 리우이하오(劉以豪·류이호)가 출연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투게더’가 오는 26일 전 세계 공개된다.

8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투게더’는 이승기와 리우이하오가 인도네시아의 족카르타(육아카르타)와 발리, 태국의 방콕과 치앙마이, 네덜란드의 포키리와 카트만두까지 6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여행 과정을 담았다.

이들은 팬이 추천한 장소를 여행하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한다. 각종 바라이어터 출연 경력이 많은 이승기와 예능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리우이하오의 ‘케미스트리’가 재미를 선사한다. /연합뉴스



걸그룹 트와이스

‘13연속 히트’ 트와이스 “과정 행복하다면 결과는 두렵지 않아”

미니 7집 ‘모어 앤드 모어’ 발매 하루 만에 26만5000장 팔려 자체 기록 경신

“예전에는 내실 결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앨범을 내면 낼수록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나중에 나올 결과가 두렵지는 않았어요.”(나연)

최근 새 앨범을 발매한 걸그룹 트와이스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한 일문일답에서 대중의 기대가 부담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이들이 내놓은 미니 7집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는 발매 하루 만에 약 26만 5000장이 팔리며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TT’, ‘치어 업’(CHEER UP), ‘우아하게’,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 ‘팬시’, ‘필 스페셜’(Feel Special) 등을 이어 열세곡 연속으로 히트 신화를 쓴 것이다.

“부담감에 갇혀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지효)

지효는 팬들이 자신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모습도 보이고 싶어 지난해부터 조금씩 변하는 중이라며 “우리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과 건강함을 잘 섞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범과 동명 타이틀곡은 사랑의 설렘을 담은 노래로, 기존에 트와이스가 선보여온 청량한 매력의 돋보이는 댄스곡이다.

그러나 트와이스가 “지금까지 했던 안무 중 가장 난도가 높다”고 입을 모은 만큼 파워풀한 요소를 더해 변신을 꾀했다.

KBS 1TV ‘6시 내 고향’이나, JTBC 뉴스 등 프

로그래에 잇달아 출연해 신선함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이번 앨범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미나에게 “용기를 내줘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미나는 지난해 불안 장애를 호소해 월드투어 등 팀 스케줄에 참여하지 못했고, 트와이스는 8인조로 활동했다.

채영은 “지난 활동 때 8명이 무대를 했는데, 미나 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다”며 “이번에는 9명이 무대를 꼭 채우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했다.

쥬위 역시 “트와이스는 9명일 때 가장 빛나는 것 같다”면서 “렘브러한 명 한 명의 빛이 모여서 더 큰 빛을 내는 듯하다”며 완전체로 활동하게 된 것에 기뻐했다.

이렇듯 ‘아홉명의 트와이스’를 강조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인기 비결로 멤버 간 끈끈함을 꼽았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뮤엠영어동림캠퍼스</p> <p>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엠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p>	<p>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p> <p>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신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p>	<p>(유)신 화 로 프</p> <p>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p>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고 전 방</p> <p>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퀵타로카드</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장 어 수 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경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p>	<p>미가한우명가</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p>	<p>무크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회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p>	<p>한성꽃화원</p> <p>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p>우 리 뷔 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p>만 福 堂</p> <p>동구 계봉로 184번길 5-9(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p>	<p>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p> <p>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p>	<p>초 대 화 랑</p> <p>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대성각 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p>
<p>석 당 화 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박 당 화 랑</p>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